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²⁵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
는 자들이여 ²⁶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
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²⁷
⁷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
하시니라 ²⁸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
는 것 같이 하시니 ²⁹그들이 강
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
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
라 ³⁰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³¹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
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
니하시는지라 ³²그들이 서로 말
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
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
지 아니하더냐 하고 ³³곧 그 때

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³⁴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
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³⁵두 사람
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
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
신 것을 말하더라 (눅24:25-35)

※ 무척 당혹스럽고 혼란한 아침
입니다. 간밤, 그러니까 새벽 4시
쯤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영장을 발
부했고, 이에 따라 구치소에서 대
기 중이던 대통령은 수형복, 그러
니까 죄수복으로 갈아입고 독방
에 수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같은 저 파렴치범은 버젓
이 저러고 다니는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당연한
권리인 계엄을, 그것도 두 시간짜
리, 국민에게 아무 위해도 가하지
않은 계엄을 시행했다 하여 국회
를 통해 대통령 탄핵 소추되어
현재 현재에서 심리 중, 그것도
아주 속전속결로 진행 중이고, 그
와는 별도로 권한도 없는 공수처
에 의해, 그리고 거기에 부화뇌동
한 경찰에 의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 결국 오늘 구속되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었습니다. 아... 마음 같아선 지금이라도 집회 현장에 나가 저들과 함께해야 할 것 같은데... 아, 어쩌면 좋을까요? 멀쩡한 나라가 한순간에 송두리째 저 반국가 국가전복 세력에 의해 두 눈 뜨고 넘어갈 것만 같습니다. 이토록 치밀하게 오랜 세월 저들은 한 나라 전 분야에 걸쳐 비밀하고 의문스럽게 몰래 준비해 왔군요! 내일은 미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는 날인데요, 주님이 트럼프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을 돕게 하실까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대에 또다시 이런 과거 3.1 운동 같은 날이 올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정말 이 나라가 그런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면 저는 미련 없이 나라를 위해 이 한 몸 던질 생각입니다. 살아서 자기의 조국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무슨 죽어서 새로운 조국인 천국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 그리고 또 하나, 어제는 지난날 우리 교회를 크게 도우시던 귀한 권사님의 발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구촌교회 고 안정희 권사님이신데, 그 인연은 과거 서울침례교회로까지 거슬러 올라가

지요. 우리가 개척 후 7년 차 되던, 재정적으로 크게 어렵던 지난 2020년부터 여러 차례 그때마다 크게 우리를 재정적으로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시기를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주님께 쓰임 받으신 분입니다. 권사님은 우리 외에도 여러 개척 교회를 물질로 돕던 분이셨습니다. 권사님의 모친 나이 사십에 태어났으나 재가하시는 바람에 어린 시절을 배다른 형제들과 보내셨고, 남편과 결혼, 자녀 넷을 두었으나 남편이 가정을 버리고 나가 두 여자 데리고 살다 죽을병 걸려 연락오더니, 중환자실 4개월 만에 별세, 남편을 용서하고 한 달을 우셨다는 권사님, 향년 82세를 일기로 그토록 소망하시던 천국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올라가셨습니다. 권사님,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권사님이 보이신 그 사랑과 돌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저희를 도우신 그 마음과 취지를 기억, 온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맡기신 소명 감당 후 천국에서 뵈겠습니다. 이제 천국에서 편히 쉬시며, 영원한 행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지난주에 이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실 주님은 벌써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 고 계십니다. 다만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지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 중 하나가 이르기를, ‘우리가 선지자로 믿고 따르던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사흘째입니다. 아침에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 말이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했다는데, 우리는 아직 그를 만나지 못했습니다’라며 슬퍼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엠마오는 영적으로 진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주님 또한 진리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는 것이나, 주님을 만나지 못해 슬퍼하는 것은 모두 진리를 향한 구도의 길을 걷는 신앙인들의 모습이지요. 그들은 살아있는 진리, 즉 선이 있는 진리가 그들을 다스리길 원하지만, 자신들의 말과 행위에서

그걸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들에게 선과 진리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런 상태가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해 뜨기 직전 깊은 어둠과 같은 상태이고, 진리가 살아난 자리에 남은 빈 무덤 같은 상태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

※ 여기서 잠깐, 이 ‘선(善, good)이 있는 진리’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말씀드리면, 이 표현과 동일한 ‘선을 동반한 진리’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진리인데 선 없는 진리, 선을 동반하지 않는 진리도 있다는 말이지요. 이것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하늘의 해, 태양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즉 햇별은 선, 햇빛은 진리로 말이지요. 햇별, 즉 열은 없고, 햇빛, 즉 빛만 있으면, 아무리 그 빛이 강렬해도 마치 겨울철 햇빛과 같아 만물이 절대 생장하지 못합니다. 만물의 생장은 햇별, 곧 열이 있어야 하지요. 그러니까 별 없는 빛, 곧 선 없는 진리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드리면, 사람이 거듭나려면 반드시 ‘선 있는 진리’라야만 한다는 것이고, 여기서 ‘선’은 곧 주님이 십니다. ‘선 없는 진리’, 즉 별 없는 빛으로는 거듭남이 불가능한데, 당연한 말씀이지만, 그것은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지는 않는 것이기 때문이며, 그것은 아무리 교리적으로 많이 알아도 주님하고는, 즉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 대제사장들과 당시 종교 리더십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선(善, good)이 있는 진리’에 대한 더욱 깊은 설명은 제 블로그 오늘 주일설교 게시글 하단에 pdf로 첨부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하는 장면인데, 이에 대해 주님이 스페덴보리를 통해 풀어 주신 내용을 지난날 청주 새 교회 시절, 이순철 목사님이 설교하신 설교 원고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 새 교회 가르침, 스페덴보리 저, ‘천국의 비밀’(Arcana Coeles

tia) 3863번 글 14번 항은,

진리를 보는 것은 진리에 대한 믿음인데, 이때 믿음은 인간의 자아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다. (이순철 역) *“seeing,” in the internal sense, signifies faith from the Lord, for there is no other faith which is faith than that which comes from the Lord. This also enables man to “see,” that is, to believe; but faith from self, or from what is man’s own, is not faith, for it causes him to see falsities as truths, and truths as falsities; and if he sees truths as truths, still he does not see, because he does not believe, for he sees himself in them, and not the Lord.*

라고 합니다. 밑에 영어 원문이 좀 더 정확한 이해를 돕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 곧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앙으로라야 진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자아에서 나오는 믿음과 주님이 주시는 신앙은 어떻게 다른지? 인간의 자아에서 나오는 믿음, 즉 인간의 자아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및 고유 본성 안에는 이기심과 세상, 세속적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신앙,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앙 안에는 주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지요. 한마디로 말해, 인간으로 말미암는 믿음은 주님을 믿되 자기 자신을 위해 믿는 것이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앙은 주님과 이웃을 위해 주님을 신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은 본질적으로 서로 다릅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그들이 왜 진리이신 주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의 믿음 가운데 아직 인간적인 것이 있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 설교 원 저자이신 이순철 목사님은 ‘*faith*’와 ‘*to believe*’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둘 다 ‘**믿음**’으로 푸시는데요, 저는 ‘**오직 믿음**’의 뉘앙스가 느껴져 가급적 스페텐보리 원문을 따라 귀찮지만 좀 엄격하게 구분, ‘*faith*’에 해당하는 부분은 ‘**신앙**’, ‘*to believe*’에 해당하는 부분은 ‘**믿음**’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저한테는 뭐랄까... 전자는 주님으로 말미암음을 더 분명히 하는 것 같고, 후자는 인간의 어

떤 자의적 접근 같이 느껴집니다.

두 사람이 주님을 만나지 못해 슬퍼하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²⁵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²⁶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라고 나무라십니다. 선지자는 보통 말씀을 뜻하거나 말씀을 통해 배우는 교리를 뜻하는데요, 그렇다면 선지자가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말씀에서 가르치는 진리를 머리로만 믿고,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은 사람의 의지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처음 진리를 배울 때는 마음이 그렇게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세상에서 오는 욕망과 그로 인한 거짓들이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보통 처음에는 진리를 따라 살려는 의지는 별로 없고, 그냥 배우는 걸로 만족합니다. 스스로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자부하기도 하지요. 이때가 믿음만 있고, 사랑은 없는 때입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한 배움이 깊어질수록 마음이 낮아지고, 그때 주님으로부터 조금씩 선한 마음이 흘러들어옵니다. 주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이란 어떤 걸까요? 진리 그 자체를 위해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주님과 이웃의 유익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시험이 찾아오는데요, 시험은 진리를 삶에 적용하려 할 때 생깁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을 주도하던 옛 주인인 자아와 새로운 주인인 진리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험에서 이길 때마다 진리에 붙어 있던 거짓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고, 그 빈 자리로 선이 있는 진리가 흘러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진 진리는 점점 순수하고 힘 있는 진리로 변합니다. 그것은 마치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즉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인성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과

정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신 말씀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해 거룩하게 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진리도 고난을 통해 더 굳건하고 거룩한 진리로 변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아야 우리에게 있는 죽은 진리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이 시험을 딛고 살아나신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의 일행이 엠마오에 가까이 갔을 때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본문 28절과 29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습니다.

²⁸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 때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²⁹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날이 저물어 주님이 그들과 함께 유(留, 머무르다)하셨다고 합니다. 말씀에서 날이 밝을 때는 주님이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우리의 삶을 주도하실 때입니다. 반대로 날이 저물 때는 인간의 자아가 삶을 주도할 때이며, 그러므로 시험의 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는 감히 지옥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듭나는 동안은 수시로 빛과 어둠이 교차합니다. 한동안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자아가 고개를 쳐듭니다. 그때 시험에 들고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살아있는 진리이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³⁰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³¹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주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떡을 주신 이가 바로 주님이시라는 걸 알았습니다. 말씀에서 떡은 사랑과 선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는 것은 주님께서 사랑과 선에 대해

가르쳐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 성찬 때 사용하는 빵과 포도주의 의미 또한 이와 같습니다. 빵(우리말 번역으로는 떡)은 선과, 포도주는 진리와 상응하며, 그래서 함께 주님의 신성(神性, Divine)을 상응, 표상, 상징합니다. 천국은 주님의 신성의 나라로, 우리 안에 이 신성이 있어야 천국의 일원이 될 수 있음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진리만 있고 선은 없는 사람, 또는 믿음만 있고 삶은 없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사랑과 선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때 그들에게 있는 자아에 속한 믿음이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신앙으로 바뀌고, 그 신앙으로 참된 진리이신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시험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그들과 함께 시험을 이기신 후, 다시 눈 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러자 32절에서 두 사람이 주님과 함께 있었던 때를 생각하며 서로 이야

눅24:25-35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기합니다.

³²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진리이신 주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지만 때 순간 그걸 느낄 수는 없습니다. 두 사람의 말처럼 말씀을 읽을 때 특별한 깨달음으로 오시거나, 또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뜨거운 사랑으로 오십니다. 또 시험을 이겼을 때는 큰 위로와 평화로 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보고 만지며 느낄 수 있습니다.

끝으로 33절로 35절까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³³곧 그 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³⁴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³⁵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그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한 단계 올라선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함께 시험에서 이길 때, 우리는 영적으로 한 단계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세상에 대한 잡다한 관심과 욕망 속에 거하지 않고, 내면에 있는 예루살렘, 즉 주님의 교회 안에 거하게 됩니다. 말씀에는 그곳에 주님의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님의 제자들은 행동하는 진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은 선에 대한 애정들을 뜻합니다. 교회는 그들, 즉 진리와 선에 대한 애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살아나신 주님께서 시몬에게 모습을 나타내셨다고 합니다. 시몬은 베드로의 다른 이름으로 순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 즉 의지를 가지고 진리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 내면의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자 두 사람이 그 말에 화답하듯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선으로 그들의 믿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음이 순종하는 신앙으로 변하고, 그 신앙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만난 살아계신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삶의 전반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진리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신이 아니라 진리이신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시길 원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좀처럼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고, 그때마다 우리는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은 후, 눈이 밝아져 주님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밝아진 눈, 곧 그렇게 눈이 밝아지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신앙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신앙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할 것입니다. 그 신앙으로 이웃과 사귀고 사랑

할 것입니다. 그 신앙으로 세상에서 오는 유혹들과 싸워 이길 것입니다. 그 신앙으로 살아계신 주님의 통치에 모든 걸 맡길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그런 은혜가 이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³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 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와 길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⁵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사40:3, 5)

아멘

2023-05-21(D1)

서울 새 교회 이순철 목사

2025-01-19(D1)

한결같은 교회 변일국 목사